

세계기도정보

[동남아시아] 동남아 국가들, 기독교 박해 여전하다...실종, 구금, 태형 등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군, 암하라주서 민간인 수천 명 구금 중”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의 날, 전 세계 교회 동참 촉구
 [스페인] 복음주의자들, 홍수 피해 지역 섬기면서 기도 요청
 [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한달간 1만5천명 신청
 [아르헨티나] 복음주의 교회들, ‘개신교의 날’ 최초 공식 기념
 [중국] 중국·이란 유대 강화, 기독교 박해 심화시킬 수도
 [이탈리아] 이태리, 대리모 임신 금지 해외까지 확대
 [코스타리카] 복음주의연맹, 교회 돈세탁 방지 위한 목회자 교육
 [호주] 호주 기독교 학교, 십자가 목걸이 착용 금지 ‘논란’
 [스페인] 50년만의 최악 홍수 최소 95명 사망...1년치 비 8시간동안 내려
 [아이티] 기독교인, 혼란한 상황에 음식·의료 지원하며 복음 전파

선교후원

현황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정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김 성 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2024. 11
멕시코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하나님 나라!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마지막 안수식(쿠바).

2014년부터 진행되어 온 쿠바에서 이동식 사역이 그 끝을 맺는다. 총 26명의 졸업생과 그중 23명이 안수를 받았다. 목회자들을 경제적으로 돕고 지역교회가 멈추지 않고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서 배우려는 사람들이 폭발한다. 이제 쿠바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에서도 우리를 통해 공부한 분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신학교를 마친 자들과 동일하게 인정하며 안수를 허락한다. 외형적으로 지금이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 우리가 멈추어야 할 때라는 것을 잘 안다.

나는 우리의 사역이 어느순간 세력이 되는 것을 늘 조심했다. 나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통해 훈련받은 분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았다. 나는 그 누구보다 내가 세력을 가지게 되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구제가 사역에 접목되는 순간, 사람들의 눈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세워진 목회자들과 지역 교회들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다.

열린 문, 페루

만 10년의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페루의 문을 열어주셨다. 페루 장로교 교단 전체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성경으로 그곳 목회자들을 제자 훈련 시켜 선교적 목회자로 사람들을 바꾸는 임무를 받았다. 지난 8월 방문을 통해 총회는 나를 끊임없이 평가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 총회는 나에게 기꺼이 그들 안에 있는 중요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위탁한다. 사실 아직도 나를 향한 완전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나는 생각한다. 11월 20일부터 있을 한 달이 넘는 이번 방문 기간동안 페루 북부 지역에서는 다시 나를 평가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페루 수도와 남부 그리고 북부 특히 아마존 지역에서의 사역을 위해 나는 당분간 매 석 달에 한 달은 페루에서 머물며 이 사역을 진행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은퇴 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교지에서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 끝이 보인다

10월 23일 수요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쿠바에 입국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로 나를 걸고 넘어질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그러나 나의 걱정과 달리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에게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민 가방 10개의 의약품과 함께 나를 입국시켜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우리는 바로 하바나로 향했다. 야간 버스를 타고 까마웨이로 가기 전 현지 리더들과 모임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했다. 매번 모임을 가질 때마다 공간에 발각이 되어 이번에는 모임 장소를 바꾸고, 또 14명만 초대했다. 그러나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사람들에게 내가 당분간 들어올 수 없음을 고지했다.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지만, 모임은 은혜다.

10월 24일 목요일, 밤새 10시간을 달려 아침에 까마웨이에 도착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일부 팀원들은 첫 번째 모임 장소로 떠났다. 그러나 순조로웠던 입국 때와 달리, 이민청 직원들이 나를 찾아왔다.

늘 나는 팀원들의 안전을 걱정해 언제나 모든 취조를 내가 받아왔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민청 직원들이 나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주인에게서 들은 호세 목사와 까를로스 목사가 내가 지금 없다고 말한 뒤 나를 대신해 취조를 받는다. 2014년 쿠바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며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어느덧 팀원들은 나를 보호하는 자가 되어있었다. 이제 내가 떠나야 할 때가 되어감을 느낀다. 이민청 직원은 우리가 의약품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목적으로 들어온다면, 대사관을 통해 이 일을 진행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일반 약이 아닌 약을 따로 허락을 받으라고 말하며, 40분이 넘게 쿠바에 들어온 까를로스 목사에게 경고장을 전달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온 약을 조사 해야겠다며 약품을 둔 라몬 목사의 교회로 떠난다.

나는 라몬에게 연락해 일반 의약품이 아닌 모든 약을 지금 당장 숨기라고 말했다. 우리가 가져온 의약품 가지고 간 이민청 직원들은 다음날 의약품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어제 도착하자마자 모임을 한 하바나의 한 교회로부터 연락이 왔다. 공간이 자신들의 교회를 다녀갔으며, 사역을 지금 멈출 것을 나에게 권한다.

10월 25일 금요일, 공간의 관심을 피하고자 팀원들을 보낸 후 나는 홀로 숙소에 남아, 팀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를 찾아 가브리엘 목사 부부가 왔다. 최근 손녀가 아파 병원을 갔는데 약이 없어 피를 흘리는 어린 손녀를 보며 느꼈던 자신들의 심정과 최근 4일간의 정전과 단수로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을 나에게 토로한다. 갈수록 나의 공간은 줄어들어 가는데, 이 땅의 아픔은 점점 커진다. 부모의 마음은 다 동일할 텐데. . .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지 감금이 아닌 감금된 나를 찾아오는 이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며 나는 생각이 많아진다.

혼동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며 나는 팀원들과 모임을 가졌다. 오늘은 가지고 간 의약품으로 인해 현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모두가 의약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간 약품은 한정되어 있다. 원칙을 세워 일을 진행하지만, 모두가 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두가 원칙에 수긍하는 것은 아니다. 착한 초짜 미겔 목사에게 현지 목사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미겔 목사가 힘들었나 보다. “목사님, 우리가 가져온 약으로 인해 현지 목사님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면, 이제 의약품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말했다: “목사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목사님께 의약품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말하면, 모두 저에게 감금 아니 감금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11월 기도제목:

1. 쿠바에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2.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페루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고, 준비된 영혼을 붙여 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3. 내년 1월 1일부터 멕시코 메리다와 팔렌케에서 진행될 ‘다음세대 주일학교 교사 양육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팀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준비된 영혼을 보내어 주시고, 또 모든 일정 속에서 팀원의 건강을 지켜 주시길.